

매일 미사 전례 독서

2010년 5월

한국 천주교 주교회의

신심 미사(부활 시기) 사도들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

제1독서 〈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, 12-14; 2, 1-4

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, ¹²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. ¹³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.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, 필립보와 토마스,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,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.

¹⁴ 그들은 모두,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.

^{2,1}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.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,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.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.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,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7(86), 1-2.3과 5.6-7(◎ 3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느님의 도성아,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,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. ◎

○ 하느님의 도성아,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. 시온을 두고는 이렇게 말한다. “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,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.” ◎

○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 가며 헤아리신다. “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.”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. “나의 샘은 모두 네 안에 있네.” ◎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의 모후이시며 세상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고통을 받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서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분이 네 어머니시다.”>

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9, 25-27

그때에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,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.

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,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. “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”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분이 네 어머니시다.”

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신심 미사(연중 시기)

만물의 여왕 복되신 동정 마리아

제1독서 <그분의 왕권은 강대하고, 그분의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.>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9, 1-3. 5-6

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,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.

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, 수확할 때 기뻐하듯,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.

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젊어진 명에와, 어깨에 맨 장대와,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,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.

⁵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,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.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,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, 용맹한 하느님, 영원한 아버지,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.

⁶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,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.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,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

지켜 가리이다.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5(44), 11-12. 14-15. 16-17. 18(◎ 11-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 네 백성,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.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.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, 그분 앞에 엎드려라. ◎

○ 화사하게 한껏 꾸민 임금님 딸이, 금실로 수놓은 옷에 싸여 안으로 드는구나. 오색 옷, 단장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는구나. 처녀들이 뒤따르며, 동무들도 오는구나. ◎

○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. 당신 아들이 조상의 뒤를 이으니,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다. ◎

○ 저는 당신 이름을 세세 대대 전하리니,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무궁 찬송하리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1, 2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,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,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26-38

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,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“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”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

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

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³¹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,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,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,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”

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, “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자,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

“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.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

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”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일 토요일 노동자 성 요셉

제1독서 〈너희는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.〉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1, 26—2, 3〈또는 콜로 3, 14-15. 17. 23-24〉

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.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.” ²⁷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.

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,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. ²⁸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.

“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,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.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.”

²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.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. ³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

³¹ 하느님께서 보시니,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.

^{2,1}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. ²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.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이렛날에 쉬셨다. ³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.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0(89), 2.3-4.12-13.14와 16(◎ 17ㄷ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산들이 솟기 전에,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,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. ◎

-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. “사람들아, 돌아가라.” 천 년도 당신 눈에는,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.
- ◎ 주님,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. (또는 ◎알렐루야.)
-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 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◎
-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.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,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시편 68(67), 20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은 날마다 찬미받으소서. 우리 집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?>

- 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3, 54-58

그때에 ⁵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,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.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. “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? ⁵⁵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?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?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, 요셉, 시몬, 유다가 아닌가? ⁵⁶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?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?” ⁵⁷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.

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,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.”

⁵⁸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일 부활 제4주간 토요일

제1독서 <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.>

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3, 44-52

⁴⁴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. ⁴⁵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. ⁴⁶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.

“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,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,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. ⁴⁷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. ‘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,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.’”

⁴⁸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.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. ⁴⁹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.

⁵⁰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,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. ⁵¹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. ⁵²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8(97), 1.2-3ㄴ.3ㄷ-4(◎ 3ㄷㄴ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(또는 ◎알렐루야.)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,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
○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,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
○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,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.>

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4,7-14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⁷ “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.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,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.”

⁸ 필립보가 예수님께, “주님,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.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.” 하자,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

“필립보야,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,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?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.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‘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.’ 하느냐?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?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.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.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.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.

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,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.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.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. ¹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일 부활 제5주일

제1독서 <두 사도는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.>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14, 21ㄴ-27

그 무렵 ²¹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,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. ²²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, “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²³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,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,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.

²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, ²⁵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. ²⁶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.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,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.

²⁷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,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 8-9. 10-11. 12-13ㄴ (◎ 1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저의 임금 하느님,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,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.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,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. ◎

○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,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 ◎

제2독서 <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.>

▮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

21, 1-5ㄴ

¹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.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,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.

²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,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,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³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

“보라,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.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,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, 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. 다시는 죽음이 없고, 다시는 슬픔도, 울부짖음도,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.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.”

⁵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“보라,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요한 13, 34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3, 31-33 ㄱ. 34-35

³¹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,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. ³²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,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.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. ³³ 애들아,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. ³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 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,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3일 월요일
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

제1독서 <주님께서는 야고보에게,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5,1-8

¹ 형제 여러분,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.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. ²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,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,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.

³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. 곧,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⁴ 묻히셨으며,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, ⁵ 케파에게,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⁶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,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. ⁷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,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⁸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9(18).2-3.4-5ㄴ(◎ 5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 나가네. (또는 ◎알렐루야.)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,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.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,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. ◎

○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,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,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,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 나가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6ㄴ.9ㄷ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필립보야,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,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?>

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4,6-14

그때에 ⁶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 ⁷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.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,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.”

⁸ 필립보가 예수님께, “주님,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.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.” 하자,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

“필립보야,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,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?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.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‘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.’ 하느냐?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,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?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.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.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,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.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.

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,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.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.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. ¹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4일

부활 제5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두 사도는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.>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4,19-28

그 무렵 ¹⁹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,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.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. ²⁰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,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.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.

²¹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, 수많은 사람을

제자로 삼은 다음,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,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. ²²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,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, “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²³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,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,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.

²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, ²⁵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. ²⁶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.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,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.

²⁷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,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. ²⁸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 10-11. 12-13ㄴ. 21(◎ 12ㄴ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,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.

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,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 ◎

○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.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 찬미하리라. 영영세세에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24, 46. 26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,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.>

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4, 27-31 ㄱ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⁷ “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.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.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.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,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. ²⁸ ‘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.’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.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,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.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.

²⁹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.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. ³⁰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.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.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. ³¹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5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.>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5, 1-6

그 무렵 ¹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, “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”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. ²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,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.

³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,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 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. 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,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.

⁵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, “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 ⁶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22(121), 1-2.3-4ㄱ.4ㄴ-5(◎ 1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“주님의 집에 가자!” 할 때, 나는 몹시 기뻐노라. 예루살렘아, 네 성문에
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. ◎

○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, 견고하게 세워졌네.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.
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. ◎

○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,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. 그곳에 심판의 왕좌,
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4ㄱ.5ㄴ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안에 머물러라.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, 나도 그
안에 머물러,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1-8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 “나는 참포도나무요,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. ²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
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,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
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.

³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. ⁴ 내 안에 머물러라.
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
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,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
못한다.

⁵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다.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
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.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.

⁶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. 그러면
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.

⁷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,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.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

⁸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,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6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나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.>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5, 7-21

그 무렵 ⁷ 오랜 논란 끝에,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.

“형제 여러분,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. 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. ⁹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,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.

¹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,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? ¹¹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.” ¹²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.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,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. ¹³ 그들이 말을 마치자,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.

“형제 여러분,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. ¹⁴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,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¹⁵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,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

¹⁶ ‘그 뒤에 나는 돌아와,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.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.

¹⁷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,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.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, ¹⁸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.’

¹⁹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,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, ²⁰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,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. ²¹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,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6(95), 1-2, 2-3, 10(◎ 3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
○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 구원을.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
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◎

○ 겨레들에게 말하여라. “주님은 임금입니다.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
흔들리지 않고,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0, 2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 나는 그들을
알고, 그들은 나를 따른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 9-11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⁹ “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¹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

머무르는 것처럼,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.

¹¹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,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7일 부활 제5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5,22-31

그 무렵 ²²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,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.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. ²³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.

“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. ²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,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²⁵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,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. ²⁶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.

²⁷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.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.

²⁸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²⁹ 곧,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”

³⁰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,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 놓고 편지를 전하였다. ³¹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57(56), 8-9, 10-12(◎ 10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리이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제 마음 든든하나이다, 하느님. 제 마음 든든하나이다. 저는 노래하며 찬미하나이다. 내 영혼아, 깨어나라. 수금아, 비파야, 깨어나라.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. ◎

○ 주님,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, 거레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이다. 당신의 자애 크시어 하늘에 이르고, 당신의 진실 크시어 구름에 닿나이다. 하느님, 하늘 높이 오르소서. 당신 영광을 온 땅 위에 드러내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 15ㄷ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.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 12-17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² “이것이 나의 계명이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 ¹³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.

¹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. ¹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.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.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.

¹⁶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.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,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.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. ¹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8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6, 1-10

그 무렵 ¹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.

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,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써, ²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. ³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.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.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

⁴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,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 주며 지키게 하였다. ⁵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,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 갔다.

⁶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,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. ⁷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,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. ⁸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. ⁹ 그런데 어느 날 밤,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.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, “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.”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.

¹⁰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,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.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0(99), 1-2. 3. 5(◎ 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온 세상이, 주님께 환성 올려라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온 세상이, 주님께 환성 올려라.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.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. ◎

- 너희는 알아라, 주님은 하느님이시다.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, 그분의 백성,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. ◎
-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,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,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콜로 3,1

- ◎ 알렐루야.
-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,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.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5,18-21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⁸ “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,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. ¹⁹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.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,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.

²⁰ ‘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.’ 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.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,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. ²¹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.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9일 부활 제6주일

제1독서 <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>

□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5, 1-2. 22-29

그 무렵 ¹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, “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”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. ²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,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.

²²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,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.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. ²³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.

“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.

²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,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²⁵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. ²⁶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.

²⁷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.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. ²⁸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²⁹ 곧,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옳바로 사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7(66), 2-3. 5. 6과 8(◎ 4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하느님,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.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.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,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. ◎

○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,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,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. ◎

○ 하느님,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. ◎

〈우리나라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다음 주일에 지내므로 오늘의 제2독서와 복음 대신에 부활 제7주일의 것을 봉독할 수도 있다.〉

제2독서 〈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.〉

□□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 21,10-14.22-23〈또는 22,12-14.16-17.20〉

¹⁰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,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. ¹¹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.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,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 ¹²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.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,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

¹³ 동쪽에 성문이 셋, 북쪽에 성문이 셋, 남쪽에 성문이 셋,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. ¹⁴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,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

²²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. ²³ 그 도성은 해도,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.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,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,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,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4,23-29<또는 17,20-26>

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.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. ²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.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.

²⁵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. ²⁶ 보호자,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,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.

²⁷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.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.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.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,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. ²⁸ ‘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.’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.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,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.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. ²⁹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.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0일 부활 제6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주님께서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.>

□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16,11-15

¹¹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,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. ¹²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,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가는 도시로, 로마 식민시였다.

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, ¹³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

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. 그리고 거기에 앉아,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.

¹⁴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,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. ¹⁵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, “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.”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9,1-2.3-4.5-6ㄱ과 9ㄴ(◎ 4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. 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.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.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,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. ◎

○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,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.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,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. ◎

○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,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.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.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26ㄴ.2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,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진리의 영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26—16,4ㄱ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⁶ “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,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,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. ²⁷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.

^{16,1}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

것이다. ²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.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. ³ 그들은 아버지도,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. 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,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1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주 예수님을 믿으시오.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.>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6, 22-34

그 무렵 필리피의 ²² 군중이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,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. ²³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,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. ²⁴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꼬를 채웠다.

²⁵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,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. ²⁶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.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.

²⁷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.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. ²⁸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, “자신을 해치지 마시오.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.” 하고 말하였다.

²⁹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. ³⁰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, “두 분 선생님,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 ³¹ 그들이 대답하였다. “주 예수님을 믿으시오.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.”

³²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. ³³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,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. ³⁴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

대접하고,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38(137), 1과 2나. 2ㄱㄴ과 3. 7ㄹ-8(◎ 7ㄹ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소서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,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.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,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.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. ◎
-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,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. 제가 부르짖던 날, 당신은 응답하시고,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,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. ◎
-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.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! 주님,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.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6, 7. 13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,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 5-11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⁵ “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. 그런데도 ‘어디로 가십니까?’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. ⁶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. ⁷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,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.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.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.

⁸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. ⁹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, ¹⁰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, ¹¹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

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2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

제1독서 〈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.〉

□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17,15,22—18,1

그 무렵 ¹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,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.

²²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.

“아테네 시민 여러분,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²³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, ‘알지 못하는 신에게’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.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.

²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,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. ²⁵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.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²⁶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,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. ²⁷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.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.

²⁸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‘우리도 그분의 자녀다.’ 하고 말하였듯이,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. ²⁹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,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. ³⁰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 주셨지만,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. ³¹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

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.”

³²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, 어떤 이들은 비웃고, 어떤 이들은 “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.” 하고 말하였다.

³³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. ³⁴ 그때에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.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,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. ^{18,1}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8,1-2.11-13 ㄱ.13ㄴ.14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네. 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.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. 모든 천사들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 모든 군대들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 ◎
-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,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, 총각들과 처녀들도, 노인들과 아이들도,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. ◎
-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. 그분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. ◎
-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.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, 그분께 가까운 백성,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16

◎ 알렐루야.

-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,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,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12-15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² “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,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. ¹³ 그러나 그분,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

이야기하시며,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. ¹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.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.

¹⁵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3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

제1독서 〈바오로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고, 회당에서 토론을 하였다.〉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18,1-8

그 무렵 ¹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. ²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퀼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. 아퀼라는,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,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.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, ³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.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.

⁴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.

⁵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,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. ⁶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, “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.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습니다.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.”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.

⁷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,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.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. ⁸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.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8(97), 1.2-3ㄴ.3ㄷ-4(◎ 2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,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-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,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-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 18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, 너희는 기뻐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가 근심하겠지만,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 16-20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⁶ “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.”

¹⁷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. “‘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.’, 또 ‘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.’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, 그것이 무슨 뜻일까?” ¹⁸ 그들은 또 “‘조금 있으면’이라고 말씀하시는데, 그것이 무슨 뜻일까?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.” 하고 말하였다.

¹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‘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.’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?” ²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,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. 너희가 근심하겠지만,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4일 금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

제1독서 〈마티아가 뽑혀,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.〉

□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, 15-17. 20-26

¹⁵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.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. ¹⁶ “형제 여러분,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,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. ¹⁷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.

²⁰ 사실 시편에, ‘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,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.’ 또 ‘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.’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²¹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, ²²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,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.”

²³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, ²⁴ 이렇게 기도하였다.

“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,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, ²⁵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,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.”

²⁶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,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3(112), 1-2. 3-4. 5-6. 7-8(◎ 8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찬양하여라, 주님의 종들아. 찬양하여라, 주님의 이름을.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, 이제부터 영원까지. ◎

○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,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.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시고,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네. ◎

-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?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.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. ◎
-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,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. 귀족들과,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, 그들을 한자리에 앉히시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16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,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9-17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⁹ “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¹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,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. ¹¹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,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.

¹²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 ¹³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.

¹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. ¹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.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.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.

¹⁶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.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,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.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.

¹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5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아폴로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였다.〉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8, 23-28

²³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,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 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.

²⁴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,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,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. ²⁵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.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.

²⁶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, 프리스킬라와 아퀼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. ²⁷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,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,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.

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,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. ²⁸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,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대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7(46), 2-3. 8-9. 10(◎ 8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입니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모든 민족들아, 손뼉을 쳐라.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.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, 경외로우신 분,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입니다. ◎

○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,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.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.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. ◎

○ 모든 민족의 귀족들이 모여 와,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 백성이 된다. 세상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,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어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6, 28

◎ 알렐루야.

○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,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
가노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.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, 또 믿었기 때문이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16,23^ㄴ-28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³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
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²⁴ 지금까지 너희는
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. 청하여라. 받을 것이다. 그리하여 너희
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.

²⁵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. 그러나 더
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
너희에게 알려 줄 때가 온다.

²⁶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
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. ²⁷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. 너희가 나를
사랑하고,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.

²⁸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,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
간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6일 주일
주님 승천 대축일
(홍보 주일)

제1독서 <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.>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,1-11

¹ 테오필로스 님,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. ²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. ³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,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.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,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⁴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.

“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,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.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,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.”

⁶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. “주님,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?” 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

“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, 너희가 알 바 아니다. ⁸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,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,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.”

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,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,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. ¹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,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, ¹¹ 이렇게 말하였다.

“갈릴래아 사람들아,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?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,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7(46), 2-3. 6-7. 8-9(◎ 6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.

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모든 민족들아, 손뼉을 쳐라.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.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, 경외로우신 분,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. ◎

○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. 노래하여라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노래하여라,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. ◎

○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,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.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.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. ◎

제2독서 〈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 1,17-23〈또는 히브 9,24-28; 10,19-23〉

형제 여러분, 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, ¹⁸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시어,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,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. ¹⁹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. ²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,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. ²¹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,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볼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.

²²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,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.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,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28,19ㄱ,20ㄴ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.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.

24,46ㄴ-5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⁴⁶ “성경에 기록된 대로,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,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. ⁴⁷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,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.

⁴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. ⁴⁹ 그리고 보라,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.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.”

⁵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,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. ⁵¹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. ⁵²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⁵³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7일

부활 제7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?>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9,1-8

¹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,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.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, ² “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?” 하고 묻자, 그들이 “받지 않았습니다.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 ³ 바오로가 다시 “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?” 하니, 그들이 대답하였다. “요한의 세례입니다.”

⁴ 바오로가 말하였다. “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, 자기 뒤에 오시는 분,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렸습니다.”

⁵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. ⁶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,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. ⁷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.

⁸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8(67).2-3.4와 5ㄱㄷ.6-7ㄴ(◎ 33ㄱ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세상의 나라들아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느님이 일어나시니, 그분의 적들은 흩어지고,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. 연기가 흠날리듯 그들은 흩어지고, 불길에 밀초가 녹아내리듯,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 가네. ◎
-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.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.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. 그 이름 주님이시다. ◎
- 고아들의 아버지, 과부들의 보호자,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.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,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. ◎

복음 환호송

콜로 3,1

◎ 알렐루야.

-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,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.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용기를 내어라. 내가 세상을 이겼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29-33

그때에 ²⁹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. ³⁰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,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.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.”

³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이제는 너희가 믿느냐? ³²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. 아니, 이미 왔다.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.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.

³³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,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.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.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. 내가 세상을 이겼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8일 부활 제7주간 화요일

제1독서 〈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,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를 다 마칠 것입니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20,17-27

그 무렵 ¹⁷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,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. ¹⁸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, 바오로가 말하였다.

“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¹⁹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. ²⁰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,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가르쳤습니다. ²¹ 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,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.

²²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. ²³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 주셨습니다. ²⁴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,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,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,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.

²⁵ 이제,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. ²⁶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,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. ²⁷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8(67), 10-11. 20-21(◎ 33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세상의 나라들아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,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,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.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. 하느님,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. ◎

○ 주님은 날마다 찬미받으소서.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.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.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, 주 하느님께 있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16

◎ 알렐루야.

○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,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,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아버지, 당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.〉

✠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17,1-11ㄴ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.

“아버지, 때가 왔습니다.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. ²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,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. ³ 영원한 생명이란,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,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.

⁴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,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. ⁵ 아버지,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,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.

⁶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.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,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. ⁷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⁸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,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

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,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.

⁹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.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,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.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¹⁰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,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.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. ¹¹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,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.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19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나는 하느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.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,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>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0, 28-38

그 무렵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.

²⁸ “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.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, 하느님의 교회,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. ²⁹ 내가 떠난 뒤에,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. ³⁰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.

³¹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. ³²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.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,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.

³³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. ³⁴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. ³⁵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.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, ‘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.’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.”

³⁶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,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. ³⁷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. ³⁸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.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8(67), 29-30, 33-35 ㄱ, 35 ㄴㄷ과 36ㄷ (◎ 33 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세상의 나라들아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느님, 당신의 권능을 베푸소서. 하느님,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소서, 우리 위하여 이루신 그 권능을. 예루살렘의 당신 성전을 위하여, 임금이 당신께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. ◎
- 세상의 나라들아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주님을 찬송하여라. 하늘로, 태초의 하늘로 오르신다. 보라, 그분이 목소리 높이시니 그 소리 우렁차네. 하느님께 권능을 드러라. ◎
- 그분의 존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, 그분의 권능은 구름 위에 있네.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7, 17 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,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,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7, 11 ㄷ-19

그때에 예수님께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.

¹¹ “거룩하신 아버지,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,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. ¹²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,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.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,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.

¹³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.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

이유는,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. ¹⁴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,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.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,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¹⁵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,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. ¹⁶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,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. ¹⁷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.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. ¹⁸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,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. ¹⁹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.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0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

제1독서 〈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2,30; 23,6-11

그 무렵 ³⁰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, 바오로를 풀어 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,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.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.

^{23,6}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, 바오로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. “형제 여러분, 나는 바리사이이며,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.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”

⁷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,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. ⁸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, 천사도,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,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.

⁹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, 바리사이파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. “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?”

¹⁰ 논쟁이 격렬해지자,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,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.

¹¹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. “용기를 내어라.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6(15), 1-2 ㄱ과 5.7-8.9-10.11(◎ 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느님, 저를 지켜 주소서. 당신께 피신하나이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느님, 저를 지켜 주소서. 당신께 피신하나이다. 주님께 아뢰나이다. “당신은 저의 주님.” 주님은 제 몫의 유산, 저의 잔,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. ◎
-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,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.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,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,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. ◎
-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,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.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,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. ◎
-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,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,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7, 21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기도하신다. 아버지,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,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. 당신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리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7, 20-26

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.

²⁰ “저는 이들만이 아니라,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. ²¹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. 아버지, 아버지께서 제 안에

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,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.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.

²²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. ²³ 저는 그들 안에 있고,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.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,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.

²⁴ 아버지,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.

²⁵ 의로우신 아버지,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²⁶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,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.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,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1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이미 죽은 예수를, 바오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합니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5, 13ㄴ-21

그 무렵 ¹³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. ¹⁴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,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.

“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, ¹⁵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,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. ¹⁶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.

¹⁷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,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¹⁸ 그런데 고발한

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,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¹⁹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,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,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.

²⁰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,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.²¹ 바오로는 그대로 간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, 11-12, 19와 20ㄱㄴ(◎ 19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
○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,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 넘치네.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, 우리들의 허물을 멀리 치우시네. ◎

○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, 당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네. 주님을 찬미하여라,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, 그분 말씀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 26

◎ 알렐루야.

○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,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. 내 양들을 돌보아라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1, 15-19

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에,¹⁵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. “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

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?”

베드로가 “예, 주님!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.”

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. “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”

베드로가 “예, 주님!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내 양들을 돌보아라.”

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. “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”

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“나를 사랑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므로, 슬퍼하며 대답하였다. “주님,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.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.”

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 양들을 돌보아라.

¹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.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,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.”

¹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,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.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,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를 따라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2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바오로는 로마에서 지내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.〉

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8, 16-20, 30-31

¹⁶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,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.

¹⁷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. 그들이 모이자, 바오로가 말하였다.

“형제 여러분,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,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. ¹⁸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,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. ¹⁹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,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.

²⁰ 그래서 여러분을 뵈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.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.”

³⁰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이 년 동안 지내며,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. ³¹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(10), 4.5와 7(◎ 7ㄴ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올곧은 이는 당신 얼굴 뵈오리다. (또는 ◎ 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,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옥좌에서, 그분 눈으로 살피시고, 그분 눈동자로 사람들을 가려내신다. ◎

○ 주님은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, 그분의 일은 폭행을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. 의로우신 주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니, 올곧은 이는 그분 얼굴 뵈오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6, 7.1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,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며, 그의 증언은 참되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1, 20-25

그때에 ²⁰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,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.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,

“주님,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?”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.

²¹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, “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²² 예수님께서서는 “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,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 너는 나를 따라라.” 하고 말씀하셨다.

²³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 나갔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, “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,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”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.

²⁴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.

²⁵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,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성령 강림 대축일

5월 22일 전야 저녁 미사

〈토요일 저녁, 성령 강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.〉

제1독서 〈주님께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.〉

▣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11,1-9

〈또는 탈출 19,3-8ㄱ.16-20나 또는 예제 37,1-14 또는 요엘 3,1-5〉

¹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,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. ²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별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. ³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.

“자,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.”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,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. ⁴ 그들은 또 말하였다. “자, 성읍을 세우고,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.”

⁵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,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⁶ 말씀하셨다. “보라, 저들은 한 겨레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.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,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. ⁷ 자,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,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.”

⁸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.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. ⁹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.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,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 시편 104(103),1-2ㄱ.24와 35ㄷ.27-28.29나-30(◎ 30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 숨을 보내시어,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.

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주 하느님,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.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,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. ◎

○ 주님,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!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,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◎ 주님, 당신 숨을 보내시어,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.

(또는 ◎알렐루야.)

○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라나이다. 제때에 먹이를 달라 청하나이다. 당신이 주시면 그들은 모아들이고, 당신 손을 펼치시면 복이 넘치나이다. ◎

○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,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.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,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. ◎

제2독서 <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

8, 22-27

형제 여러분, ²²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²³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,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,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. ²⁴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.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.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? ²⁵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.

²⁶ 이와 같이,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.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,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. ²⁷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.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부속가 <57면 참조>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오소서, 성령님,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,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.〉

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 37-39

³⁷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,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.

“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. ³⁸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‘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.’”

³⁹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.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,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3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

제1독서 〈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기 시작하였다.〉

▣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,1-11

¹ 오순절이 되었을 때,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.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,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.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.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,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.

⁵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, ⁶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.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.

⁷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. “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? ⁸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?

⁹ 파르티아 사람, 메디아 사람, 엘람 사람,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, ¹⁰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,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,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, ¹¹ 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,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?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4(103), 1ㄱ과 24ㄱ, 29ㄴ-30, 31과 34(◎ 30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 숨을 보내시어,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.

(또는 ◎알렐루야.)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주 하느님,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.
주님,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!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
가득하옵니다. ◎

○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,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.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,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. ◎

○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.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.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!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. ◎

제2독서 <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2,3-7.12-13<또는 로마 8,8-17>
형제 여러분, ³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“예수님은 주님이시다.” 할 수 없습니다.

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,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. ⁵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,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. ⁶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,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. ⁷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리내 보여 주십니다.

¹²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,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,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. ¹³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, 종이든 자유인이든,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.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부속가 <성령 송가>

오소서, 성령님. 주님의 빛,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.
가난한 이 아버지, 오소서 은총 주님, 오소서 마음의 빛
가장 좋은 위로자, 영혼의 기쁜 손님, 저희 생기 돋우소서.
일할 때에 휴식을, 무더위에 시원함을, 슬플 때에 위로를.
영원하신 행복의 빛,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.
주님 도움 없으시면, 저희 삶의 그 모든 것, 해로운 것뿐이리라.
허물들은 씻어 주고, 메마른 땅 물 주시고, 병든 것을 고치소서.
굳은 마음 풀어 주고, 차디찬 맘 데우시고, 빛나간 길 바루소서.
성령님을 굳게 믿고, 의지하는 이들에게, 성령 칠은 베푸소서.
덕행 공로 쌓게 하고, 구원의 문 활짝 열어, 영원 복락 주옵소서.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오소서, 성령님,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,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. 성령을 받아라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0,19-23<또는 14,15-16.23ㄴ-26>

¹⁹ 그날,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,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, “평화가 너희와 함께!”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,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.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.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평화가 너희와 함께!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.” ²²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,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. “성령을 받아라.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,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4일 연중 제8주간 월요일 (교육 주간)

제1독서 <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, 믿고 있으며, 기뻐하고 있습니다.>

▣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 1,3-9

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. 하느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,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, ⁴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.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. ⁵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,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

⁶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.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⁷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

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,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. 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,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⁹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1(110), 1-2, 5-6, 9ㄱ-ㄴ과 10ㄷ (◎ 5ㄴ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을 찬송하리라. 올곧은 이들의 모임, 그 집회에서,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.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.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. ◎
-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,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. 위대하신 그 일들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고, 민족들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셨네. ◎
-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,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네. 주님 찬양 영원히 이어지네. ◎

복음 환호송

2코린 8,9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.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가진 것을 다 팔고, 나를 따라라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 17-27

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,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, “선하신 스승님,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?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. ¹⁹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

않느냐? ‘살인해서는 안 된다. 간음해서는 안 된다.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.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. 횡령해서는 안 된다.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.’”

²⁰ 그가 예수님께 “스승님,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²¹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. “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.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.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.” ²²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.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

²³ 예수님께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!” ²⁴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. “얘들아,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! ²⁵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.”

²⁶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, “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?” 하고 서로 말하였다.

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. “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,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.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5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

제1독서 〈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으니,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.〉

▣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

1, 10-16

사랑하는 여러분, ¹⁰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. ¹¹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닮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. ¹²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.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

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.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.

¹³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,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. ¹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,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, ¹⁵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,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. ¹⁶ “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”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8(97), 1.2-3나.3다-4(◎ 2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
○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,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
○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2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,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고,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28-31

²⁸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보시다시피,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.”

²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누구든지 나

때문에,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, 어머니나 아버지,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³⁰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,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,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. ³¹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6일 수요일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

제1독서 <여러분은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되었습니다.>

▣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

1, 18-25

사랑하는 여러분, ¹⁸ 여러분도 알다시피,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,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, ¹⁹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. ²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,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. ²¹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,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.

²²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,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. ²³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, 곧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. ²⁴ “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,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.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, ²⁵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.”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7, 12-13, 14-15, 19-20(◎ 12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시온아,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.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,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. ◎
- 그분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,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.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,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. ◎
- 그분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,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.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?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. ◎

복음 환호송

마르 10,45

- ◎ 알렐루야.
-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,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.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32-45

³²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서 가고 계셨다.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.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,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

³³ “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.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.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,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, ³⁴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.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.”

³⁵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, “스승님,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³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³⁷ 그들이 “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,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,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³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.

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,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³⁹ 그들이 “할 수 있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,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. ⁴⁰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,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.”

⁴¹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,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. ⁴²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. “너희도 알다시피,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,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. ⁴³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.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. ⁴⁴ 또한,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. ⁴⁵ 사실,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,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7일 연중 제8주간 목요일

제1독서 〈여러분은 임금의 사제단이며, 거룩한 민족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.〉

▮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

2,2-5.9-12

사랑하는 여러분, ²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.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. ³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.

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.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.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,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. ⁵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.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.

⁹ 여러분은 “선택된 겨레고, 임금의 사제단이며, 거룩한 민족이고,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은”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

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“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.”¹⁰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,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.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,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.

¹¹ 사랑하는 여러분,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.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.¹²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.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,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0(99),1-2.3.4.5(◎ 2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온 세상아, 주님께 환성 올려라.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.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. ◎

○ 너희는 알아라, 주님은 하느님이시다.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, 그분의 백성,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. ◎

○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. 찬양하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.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
○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,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,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8,12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스승님,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46ㄴ-52

⁴⁶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,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,⁴⁷ 나자렛

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, “다윗의 자손 예수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”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. ⁴⁸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, 그는 더욱 큰 소리로 “다윗의 자손이시여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” 하고 외쳤다.

⁴⁹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, “그를 불러오너라.” 하셨다.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, “용기를 내어 일어나게.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.” 하고 말하였다. ⁵⁰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. ⁵¹ 예수님께서 “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그 눈먼 이가 “스승님,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.” 하였다.

⁵²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가거라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” 하고 이르시니,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.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8일 연중 제8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십시오.〉

□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

4, 7-13

사랑하는 여러분, ⁷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.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. ⁸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.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. ⁹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. ¹⁰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,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. ¹¹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,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.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.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. 아멘.

¹² 사랑하는 여러분,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. ¹³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.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6(95), 10, 11-12, 13(◎ 13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겨레들에게 말하여라. “주님은 임금입니다.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,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.” ◎
-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.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,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. ◎
- 그분이 오신다.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.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.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,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 16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,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. 하느님을 믿어라.〉

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 11-25

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¹¹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.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,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.

¹²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시장하셨다. ¹³ 마침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,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,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. “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.”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.

¹⁵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.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,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.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. ¹⁶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

나르지 못하게 하셨다. ¹⁷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.”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?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‘강도들의 소굴’로 만들어 버렸다.”

¹⁸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.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.

¹⁹ 날이 저물자,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. ²⁰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,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. ²¹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보십시오.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.”

²²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하느님을 믿어라. ²³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누구든지 이 산더러 ‘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.’ 하면서,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, 그대로 될 것이다. ²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.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

²⁵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.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29일 연중 제8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,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.〉

▮ 유다서의 말씀입니다.

17.20ㄴ-25

¹⁷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. ²⁰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.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. ²¹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,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. ²²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. ²³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.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

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,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.

²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,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, ²⁵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,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. 아멘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3(62).2.3-4.5-6(◎ 2ㄷ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저의 하느님,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느님,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.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,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.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,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◎

○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,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.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,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콜로 3,16ㄱ.17ㄷ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그리스도,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.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?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 27-33

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²⁷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.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,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, ²⁸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?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?”

²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

대답해 보아라.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. ³⁰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,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? 대답해 보아라.”

³¹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. “‘하늘에서 왔다.’ 하면, ‘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?’ 하고 말할 터이니, ³² ‘사람에게서 왔다.’ 할까?”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, ³³ 예수님께 “모르겠소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30일 주일
삼위일체 대축일
(청소년 주일 · 생명의 날)

제1독서 〈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.〉

▮ 잠언의 말씀입니다.

8, 22-31

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.

²² “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.

²³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.

²⁴ 심연이 생기기 전에,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. ²⁵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,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. ²⁶ 그분께서 땅과 들을, 우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.

²⁷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,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.

²⁸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, ²⁹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,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³⁰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.

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,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. ³¹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, 4-5. 6-7. 8-9(◎ 2ㄱ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저희 주님, 온 땅에 당신 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!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우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하며,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.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?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? ◎

○ 주님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,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.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,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. ◎

○ 주님은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, 들짐승하며,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,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.

◎ 주님, 저희 주님, 온 땅에 당신 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!

제2독서 〈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옵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

5,1-5

형제 여러분, ¹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. ² 믿음 덕분에,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.

³ 그뿐만 아니라,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. 우리가 알고 있듯이,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, ⁴ 인내는 수양을,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. ⁵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묵시 1,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,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.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12-15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² “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,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. ¹³ 그러나 그분,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,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,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.

¹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.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. ¹⁵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.

그렇기 때문에,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5월 31일 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

제1독서 〈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신다.〉

▣ 스바니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3,14-18 ㄱ〈또는 로마 12,9-16ㄴ〉

¹⁴ 딸 시온아, 환성을 올려라. 이스라엘아, 크게 소리쳐라. 딸 예루살렘아,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¹⁵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,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.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,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

¹⁶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. “시온아, 두려워하지 마라.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.” ¹⁷ 주 너의 하느님,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.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.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,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. ¹⁸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이사 12,2-3.4ㄴㄷ.5-6(◎ 6ㄴㄷ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,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.

〈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“보라, 내 구원의 하느님.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. 주님은 나의 힘, 나의 굳셈. 나를 구원해 주셨네.”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. ◎

○ “주님을 찬송하여라. 그 이름 높이 불러라.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,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.” ◎

○ “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.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. 시온 사람들아, 기뻐하며 외쳐라.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,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.” ◎

◎ 알렐루야.

○ 복되신 동정 마리아 님,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,
당신은 정녕 복되시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39-56

³⁹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,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

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,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. 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,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 ⁴⁴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,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 ⁴⁵ 행복하십니다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

⁴⁶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.

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, ⁴⁷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, ⁴⁸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, ⁴⁹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, ⁵⁰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.

⁵¹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,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. ⁵²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,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, ⁵³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,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.

⁵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,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, ⁵⁵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.”

⁵⁶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